

과기정통부, 통신재난 대응 강화로 국민 일상 보호

- 2026년 안전한국훈련 실시, 통신서비스 신속 복구 및 이용자 보호체계 점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10월 30일(금) KT 구로국사와 서울·세종청사 등에서 관계기관 및 KT 등 통신 4사와 합동으로 ‘2026년 방송통신 복합재난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였다.

※ 주요 참여기관: 통신4사(KT, LG유플러스,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경찰서, 관악소방서, 제52보병사단, 중앙전파관리소,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등

이번 훈련은 드론 공격에 따른 화재·정전으로 통신시설이 마비되고, 추가 공격으로 여러 통신사의 서비스까지 장애가 확산되는 복합재난 상황을 가정하였다. 이를 통해 국민의 통신 이용 불편과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범정부 대응체계를 중점 점검하였다.

먼저, 현장훈련에서는 경찰·소방·군·지자체가 협력하여 인명구조와 화재진압, 통신시설 방호 등 초기 대응에 나섰으며, 이후 통신사업자 간 협력을 통해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통신서비스를 신속히 복구하기 위한 대응절차를 점검하였다. 특히 기존 통신망이 손상된 상황에서도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이동기지국 설치와 5세대(5G) 이동통신망을 활용한 인터넷·IPTV 임시 복구를 시연하였다.

이와 함께 통신장애가 발생하더라도 휴대전화 통화, 인터넷 접속, 카드결제 등 국민의 일상과 생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최대한 유지하기 위한 이용자 보호조치도 중점 점검하였다. 다른 통신사의 무선망을 이용하는 재난로밍과 가입 통신사에 관계없이 접속할 수 있는 재난와이파이 개방을 점검하고, 실제 통화와 인터넷 접속 상태를 확인하였다. 또한 유선인터넷 장애로 소상공인의 카드결제가 중단된 상황을 가정해 스마트폰 테더링을 활용한 결제 지원을 시연하였다.

아울러 토론훈련에서는 현장의 피해·복구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신속한 의사결정과 범정부 지원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응체계를 점검하였다. 배경훈 부총리가 중앙사고수습본부장으로 훈련을 지휘하는 가운데, 긴급구조·의료 등 필수 통신 확보, 복구 인력·장비 지원, 피해지역 대체통신수단 제공 및 국민 안내 방안 등을 중점 논의하였다.

배경훈 부총리는 “통신 인프라는 국민의 일상과 경제활동, AI 기본사회를 뒷받침하는 핵심기반시설로, 다양한 재난 상황에서도 통신서비스를 최대한 유지하고 신속히 복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이어 “이번 훈련에서 확인된 개선사항을 실제 재난 대응체계에 반영하고, 관계기관과 통신사업자 간 협력을 강화하여 국민의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대응역량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디지털기반안전과	책임자	과 장	이성훈 (044-202-6430)
		담당자	사무관	김효종 (044-202-6434)



내일을 만드는 과학기술
내일을 채우는 디지털·AI

대한민국
지정브리핑

